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11차 예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11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 이감에서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를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이감TV'를 검색하세요.

• 국어 영역 •

정 답

1	②	2	②	3	①	4	⑤	5	④
6	⑤	7	①	8	①	9	②	10	③
11	④	12	④	13	①	14	①	15	③
16	⑤	17	④	18	①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②	24	④	25	②
26	⑤	27	①	28	③	29	⑤	30	④
31	②	32	⑤	33	③	34	③	35	③
36	④	37	②	38	④	39	⑤	40	②
41	⑤	42	④	43	③	44	③	45	⑤

해 설

[1～3] (화법) 연계 지문 : 수능완성 33쪽

1.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난 협상의 특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협상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미리 드린 제안서에 나와 있듯이 ～'라는 '주민 측'의 발화에서 자신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상대방에게 미리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④'주민 측'과 '회사 측'은 '먼저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문제'를 다룬 뒤 '비산 먼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⑤ 협상의 참여자들은 경쟁적인 협력자 관계를 맺고 있다.

2. [출제의도] 특정 발화들의 공통적인 발화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회사 측'은 ㉠에서 '주민 측'이 건립을 희망해 온 건물을 공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소음과 진동을 양해해 줄 수 없는지를 물어 타협점을 탐색하였다. 이에 '주민 측'이 거부를 표시하자 ㉡에서는 공법을 바꾸는 대신 기초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괜찮은지를 물어 타협점을 탐색하였다. ㉢에서는 먼지 발생에 대한 보상비 지급 대신 물청소 횟수를 늘리는 것이 괜찮은지를 물어 타협점을 탐색하고 있다.

3. [출제의도] 협상에서 협상 참여자들의 합의 요인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회사 측'은 지나친 소음과 진동 발생으로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 측'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하여 암반을 부수는 공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주민 측'은 예산에 한계가 있는 '회사 측'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하여 먼지 보상비 대신 물청소 횟수 증가와 공사 종료 시의 창문 청소 실시를 받아들였다.

[4～7] (화법－작문)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0쪽

4. [출제의도] 인터뷰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교수'가 '학생 2'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교수'의 발화 가운데 '혹시 학생은 반려 식물을 직접 키워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은 '학생 2'의 경험을 확인하는 발화일 뿐 학습 경험을 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인 '저희가 이번에 ～얻고 싶어서 찾아뵈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인 '그렇군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인 '사실 저는 많은～이유도 있지 않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교수'의 다섯 번째 발화인 '네, 그러지요.～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인터뷰 참여자의 매체 활용 방식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수'는 식물 키우기를 어려워할 학생들이 키우기에 좋을 만한 식물을 소개하기 위해 ㉢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비와 스킨답서스가 담긴 사진을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사람들이 반려 식물 가운데 공기 정화 식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사람들이 어떤 반려 식물을 키우는지를 조사하여 정리한 표를 제시하였다. ③ 공기 정화 식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초미세 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비교해서 보여 주기 위해, ㉡에 실험실 내 초미세 먼지의 농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표시한 두 개의 꺾은선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6. [출제의도]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교수'는 식물의 종류에 따른 관리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식물을 키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키우기에 좋은 반려 식물로 아이비와 스킨답서스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⑤의 서술을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친구의 조언을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마지막 문단의 첫째 문장과 '고쳐 쓴 글'의 첫째 문장을 비교해 보면 '같이 함께하며'라는 부분에서 '같이'가 빠져 있다. 이는 '같이'와 '함께'가 의미상 중복된 것이어서 '같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문단의 둘째 문장은 '반려 식물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추상적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고쳐 쓴 글'의 둘째 문장을 보면 '반려 식물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일상의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8～10] (작문) 연계 지문 : 수능특강 74쪽, 수능완성 136쪽

8. [출제의도]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계획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에서 '공간 탐구'라는 동아리의 이름을 밝히고 있으나 그 뜻을 알려 주기 위해 유래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9. [출제의도]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2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를 선택할 때 '진로 관련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ㄷ에는 진로 관련성이 높은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정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동아리 활동에서 '다양한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ㄱ-2와 연결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의 진로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로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초고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장에서 건축학은 '꿈꾸던 공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그 매력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둘째 문장에서 '우리 동아리에서～알아 가 보지 않으시겠어요?'라며 의문문의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11～15] (언어)

11.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단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61쪽)

㉮, ㉯는 '위, 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므로 각각 '웃돈', '웃어른'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는 '아랫목'과 같은 단어를 통해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윗-' 뒤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오지 않으므로 '윗목'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는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단어이지만, 거센소리인 'ㅌ' 앞에 '윗-'이 나타나므로 '위-'로 적어야 한다.

12. [출제의도]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04쪽)

'어느새 보름달을 서산에 걸다.'와 같은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에 대응되는 능동문은 없다. 그러나 피동문 '자동차의 시동이 가볍게 걸렸다.'는 '자동차의 시동을 가볍게 걸었다.'와 같이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한다.

[오답풀이] ③ ⓒ의 피동사 '꽂히다'는 타동사인 '꽂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자동사이다.

13. [출제의도]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문법적으로 부정확하게 사용된 예를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04쪽)

'쓰여진'은 피동사의 어간 '쓰이-' 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그러므로 '쓰인'처럼 피동 표현이 한 번만 나타난 것으로 수정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된다.

14.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21쪽)

'나는 청중 앞에서 목소리를 떨었다.'의 '떨다'와 '그는 오한으로 온몸을 바르르 떨었다.'의 '떨다'는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③ 위 문장의 '불다'는 주어만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나, 아래 문장의 '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42쪽)

㉢에는 '아니'라는 부정 부사가 쓰여 주체의 의지나 능력에 관계없이 긍정문('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므로')을 단순히 부정하는 단순 부정이 나타났다.

[오답풀이] ⑤ ㉤에서는 '몯'이라는 부정 부사가 쓰인 짧은 부정문을 통해 주체인 '님금(임금)'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능력 부정이 나타났다.

[16～21] (과학 융합)

16. [출제의도] 두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유발되는 원인에 대해, (나)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가)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에서는 이들 물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②(가)와 (나)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자가 항체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사는 (가)가 아니라 (나)에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지만, (나)에서도 그 기술적 방법보다는 검사 결과의 해석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④ 체내의 물질들이 특정한 작용을 하는 과정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이토카인에 의해 촉진되는 염증은 면역 반응의 일종으로, 항원이 있는 조직에 면역 관련 세포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 관련 세포들로는 세포 독성 T세포나 B세포 등이 있다.

[오답풀이] ① 보조 T세포에서의 활성화 신호는 항원 제시 세포로부터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항원 제시 세포의 항원-MHC 복합체를 인식한 보조 T세포 표면의 T세포 수용체에서 생성되어 보조 T세포 내부로 전달되는 것이다. ② B세포에서 생성된 개별 항체는 여러 종류의 병원균들을 포획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B세포의 활성화를 유발한 병원균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그 병원균만 제거할 수 있다. ③ 보조 T세포들이 모두 인체의 말초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조 T세포 중 자가 면역 T세포의 대부분은 가슴샘에서 사멸하고 일부만 이동한다. ⑤ 조절 T세포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동반 자극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가 면역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 자가 면역 질환이 유발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빈칸을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TLA4가 다량 함유된 약물을 자가 면역 질환의 환자에게 투여하면 CD28과 B7 사이의 결합이 저해되어 자가 면역 T세포에 동반 자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동반 자극 없이 활성화 신호만을 전달받는 자가 면역 T세포가 사멸하거나 무반응 상태에 빠지는 열성 관용이 유도된다(㉯).

[오답풀이] ⑤ ㉮에 '보조 T세포의 활성화'도 적절하다. 동반 자극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보조 T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의 우성 관용이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가 면역 T세포의 T세포 수용체가 MHC 복합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류머티즘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세포 조각-MHC 복합체를 인식하고 동반 자극까지 주어져 활성화되는 경우에 류머티즘이 유발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자가 면역 T세포의 활성이 조절 T세포에 의해 적절히 억제되는 우성 관용이 나타나면 류머티즘은 유발되지 않는다. ③ 자가 면역 T세포는 대부분 가슴샘에서 제거되지만 일부가 말초 림프 기관으로 이동한다. 건강한 사람은 열성 관용이나 우성 관용이 나타나서 이 중 일부가 사멸하지만,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관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체 곳곳에 자가 면역 T세포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④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자가 면역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세포 독성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 때문에 관절통이 유발될 수 있다. ⑤ 자가 면역 T세포에 의해 활성화된 B세포가 방출하는 항체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로, 이는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종류인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체내에는 자가 면역 T세포에 의해 활성화된 B세포에 의해 자가 항체의 한 종류인 항핵 항체가 생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실제 류머티즘 환자에게서 항핵 항체는 음성일 수도 있으나 양성일 수도 있다.

20.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관절통을 호소하는 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양한 검사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지문에 근거하여 이 결과들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류머티즘이나 쇼그렌 증후군 중 하나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에는 정답이 없으며 가능한 진단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정답풀이] 항-CCP 항체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갑은 쇼그렌 증후군보다 류머티즘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류머티즘 환자의 경우, 항-CCP 항체는 발병 초기부터 계속 양성을 보이는 반면, RF는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양성을 보인다. 따라서 RF와 항-CCP 항체 모두 양성을 보이는 갑의 경우 류머티즘이 발병 초기 단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정상 세포의 핵을 항원으로 감지하여 공격하는 항체는 항핵 항체이다. 그런데 항핵 항체 검사인 ANA 검사 결과 갑은 음성, 을은 양성이므로 갑에 비해 을의 혈액에 항핵 항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갑의 CRP 검사 결과는 5 mg/dL로 정상 범위인 0~1 mg/dL보다 매우 높은 편이므로, 갑의 경우에 사이토카인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세포 독성 T세포가 손가락 관절의 연부 조직을 공격한 것이 갑의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 ④ 45세 여성인 을의 경우, ESR의 정상 수치는 (45+10)/2, 즉 27.5 정도이다. 따라서 ESR 수치가 이에 비해 매우 높은 을은 체내에 염증이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CRP 수치는 정상인 것으로 보아 류머티즘보다는 쇼그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의 경우, 항-CCP 항체 검사는 음성일 확률이 높다. 이를 종합하면 을의 질환은 쇼그렌 증후군으로, 자가 관용성이 작동하지 않아 정상 세포가 공격을 받은 결과 통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⑤ 안구 건조증은 쇼그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의 여부도 진단에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면서, ANA가 양성이어서 항-Ro/항-La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므로 을의 경우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일으키는(일으키다)'은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으나, '그는 혼자 힘으로 쓰러진 가세를 일으켰다.'의 '일으키다'는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의 뜻으로 쓰였다.

[22 ~ 26] (현대소설 - 시나리오) 전광용, '사수' / 이은성, '집념'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81쪽, 206쪽)

22.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경희와의 관계를 걸고 승부하자는 'B'의 제안은 'B'가 상대편을 나무 옆에 세워 놓고 나무통 복판을 정확하게 맞히는 쪽이 경희를 양보받기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제안이 탐탁지 않았지만 '나'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은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 하는 수 없이 응낙했다.'라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여기에 경희의 존재는 우리 둘에게 퍽 미묘한 것이었다. 나도 B도 경희를 좋아했다.'나, 'B와 나는 다른 이야기는 다 털어놓아도 경희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는 어느 쪽에서든지 말을 끄집어내는 것을 꺼렸다.' 등의 서술로 볼 때, 'B' 역시 경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뜻밖의 사실'이 될 수 없다.

23.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두 장면이 갖는 상관성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96에서 허준은 청탁 편지를 써 주겠다는 성 대감의 제의에 대해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그 은혜 결초보은하오리다.'라고 했으므로, 그가 자신의 욕망을 은폐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S#104에서도 청탁 편지를 태워 버리는 스승의 행동을 보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나 '그걸…… 왜, 그걸…….'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통해 허준의 욕망은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충분히 노출되고 있다. 즉 두 장면 모두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S#96에서 성 대감이 허준에게 보인 (청탁 편지를 써 주겠다는) 호의적 태도로 인해 S#104에서 유의태가 허준을 내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④ S#96에서는 성 대감이 허준에게 '재주가 있기에 천거'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청탁 편지를 써서 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S#104에서는 유의태가 '사사로운 인정으로 자격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근거로 허준을 파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4. [출제의도] 특정 구절이 갖는 함축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 말하는 도중에 허준이 유의태의 차가운 눈빛을 알아차리고 입을 다물며 '의아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보아, ㉣은 자신이 처한 난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차리기 이전에 하는 발화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둘러대는 말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나'와 'B'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자게 되었을 때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잤다는 것인데, 여기서 '아무것도'는 당연히 '공부'를 가리킨다. 이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공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 한 데서 나온 결과이므로, 노력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들키지 않으려 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나무통 복판을 정확하게 맞히는 쪽이 이기는 시합인데, '나'는 나무통 복판을 맞힌 반면 'B'는 나무 옆에 서 있는 '나'의 귀를 맞혔으므로 ㉢을 통해 'B'가 내기에서 졌음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경희가 '나'에게 보낸 것인데 '나'가 지금 갖고 있으므로 수신자에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는 성 대감이 쓴 것이지만 일종의 추천서 같은 것이므로 수신자가 허준이 아니라 따로 존재한다.(성 대감이 말하는 '육조에서 모모라 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수신자일 것이다. 그래서 '도지'란 인물이 허준에게 '누구에게 가는 무슨 내용인질 말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유의태의 손으로 불태워지므로 ⓑ는 타인의 방해로 인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되었다.

[오답풀이] ① ⓐ는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소지자('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는 소지자인 허준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추천서이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만지고 난 손가락 사이가 찐득거렸다.'는 (가)의 서술자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작가 자신이 독자에게 상황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라는 매개자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지만, (나)의 '서찰을 촛불에 댕긴다.'는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작가가 직접 지시하는 문장이므로 서술자라는 매개자를 통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태는 의외의 방향으로 벌어졌다'는 서술자가 'B'에게 경희와 자신의 약혼 의사를 솔직히 토로하였다고 서술한 후 그에 대한 'B'의 대답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B'의 대답이 몰고 온 결과를 알리고 있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그 이후 펼쳐질 갈등 상황에 대해 서술자가 미리 독자에게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일방적인 통고 비슷한 제의'는 'B'의 제의가 서술자인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 주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는 표현이다. 곧 인물 'B'의 발화를 있는 그대로 제시해 주지 않고 서술자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③'입에 거품을 물고 노려보는 영달. 나직이 마주 보는 준.'은 영달과 준 두 인물의 행동에 대해 지시하고 있는 문장인데, 이를 통해 영달은 준에 대해서 질투심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반면 준은 그러한 영달의 감정적 반응에 대응할 생각이 없는 담담한 심리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④'(절망)'은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직접 제시하고 있는 지시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지시문을 구현하는 것은 영상화 과정에서의 연기와 연출의 몫이므로,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연출자나 연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7 ~ 31] (예술) 연계 지문 : 수능특강 40쪽

2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베르나르는 회화의 본질이 평면성, 다시 말해 색채로 뒤덮인 평평한 표면에 있다고 보고, 평면성에 주목하였다.

[오답풀이] ② 고갱은 작품에 대상의 본질을 담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상상의 산물도 그렸다. 「설교 후의 환영」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담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③ 모리스 드니가 평면성을 회화의 새로운 전통으로 삼을 것을 주창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고갱의 화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 고갱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④ 르네상스 이후에 원근법을 활용하여 2차원 평면에 사실처럼 묘사한 대상은 주로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들이다. ⑤ 종합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현대 회화의 대다수 작품들은 평면성을 특징으로 지닌다.

28.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갱은 사실적인 재현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상주의가 사실의 재현에 보다 가깝다. 따라서 매 순간 변화하는 인상만을 좇는 인상주의의 기법을 따를 때 사실적인 재현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고갱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인상주의자들처럼 대상에 반사된 빛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은 사진의 기계적 재현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이 대상의 표피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에만 주목해서 대상이 지닌 본질을 가리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고갱은 인상주의자들처럼 자연을 직접 보면서 그리는 작업 방식이 정신적인 것을 담기 힘든 방식이라는 점을 깨닫고 기억이나 상상에 의존해서 그리라고 충고하였다. ⑤ 빛의 인상만을 담는 기교의 발달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의 추구에 머물도록 해서 화가의 감정 표현을 등한시하도록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회화 기법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클루아조니슴은 원색의 색면을 짙은 윤곽선으로 두르는 것으로, 생략을 통해 색과 형태를 단순화한 후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기법이다. 이는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관념적인 주제를 잘 드러내려 할 때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다.

[오답풀이] ① 클루아조니슴은 스테인드글라스의 경우처럼 색면을 굵은 윤곽선으로 두르듯이 그리는 기법이다. 색채의 미묘한 변화를 구현하는 기법이 아니다. ② 종합주의가 기억과 상상에 의존하여 그리려 하고 이를 위해 클루아조니슴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기억과 상상에 의존하여 그릴 때에 택할 수밖에 없는 기법인 것은 아니다. ③ 굵고 어두운 윤곽선도 단순하게나마 대상의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대상의 객관적 측면이 온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주의가 객관을 온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종합은 주관과 객관의 종합이기도 하다. ④ 클루아조니슴은 고갱이 아니라 베르나르가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감상문 작성을 위한 메모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베르나르의 작품 전시회에 다녀온 학생의 메모가 소개되어 있다. 전시회 작품을 소개한 팸플릿의 내용과 지문을 토대로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 작성을 위한 착안점들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종합주의는 세부적인 면들을 사라지게 하여 본질만 보도록 하는 경향이다. 즉 인물들의 형상을 세부적인 면들로 분해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은 인상주의 작품들이다.

[오답풀이] ① 팸플릿에는 작품의 바탕 전체에 초록색 원색을 사용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색채의 변화를 활용하는 명암법이 없는 이 작품에서 평면성과 장식성이 돋보일 것이고 따라서 인물들 사이에서 원근감을 느끼기 힘들 것이다. ②「초원 위의 브르타뉴 여인들」은 베르나르가 참여한 행사의 장면을 기억으로 떠올려 그린 것이다.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 그릴 때 복잡한 것이 사라지는 동시에 단순한 것이 종합된다. 그에 따라 색이나 형태 같은 순수한 회화 요소들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③ 클루아조니슴을 적용한 이 작품에서 단순화된 형태들의 배치와 각각의 원색이 갖는 색채의 상징성이 조화를 이룬다. 다시 말해 색이 주는 심리적 조화를 통해 화가 내면의 주관적 감정이 음악이 흐르듯 감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이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을 비롯한 대상은 색면마다 윤곽선을 둘러 도식에 가깝게 단순화되는 등 그 형태와 색채에 있어 왜곡과 과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표현을 통해 브르타뉴 지방과 관련한 종교적 주제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3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흐르는(흐르다)'은 '기운이나 상태 따위가 겉으로 드러나다.'의 의미이며 ⓑ의 '흐르듯(흐르다)'은 '빛, 소리, 향기 따위가 부드럽게 퍼지다.'의 의미이다. '화원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흐르고 있었다.'의 '흐르다'는 ⓐ의 의미로 쓰인 것이며, '거리에 흐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흥겹다.'의 '흐르다'는 ⓑ의 의미로 쓰였다.

[32 ~ 35] (고전시가) 안도환, '만언사' / 안도환, '만언사답' (연계 지문 : 수능특강 57쪽, 수능완성 157쪽)

32.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에서, 화자는 차가운 '된서리'가 내려도 언젠가는 '비와 이슬'이 올 것이라 믿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추운 계절에 내리는 '된서리'는 화자가 처한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된서리' 내릴 때와 대비해 볼 때) 따뜻한 계절의 도래를 환기하는 '비와 이슬'은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④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등잔불을 치는 '나비'는 화자의 어리석음을 빗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른 땔나무('마른 섶')를 등에 지고 뜨거운 불('열화')에 뛰어든다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뜻하므로, '열화'는 화자의 애타는 마음이 아니라 화자가 처한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을 빗댄 것이다. ②'등잔불'은 '나비'를 유혹하고 그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며, '풍운'은 [C]와 그 전후 부분의 맥락으로 볼 때 인생살이에서의 헤어짐과 만남을 의미한다.

33.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용문검(용무늬가 새겨진 검) 태아검(중국 초나라 보검의 하나)'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명검이다. 그러나 아무리 명검이라고 해도 물을 벨 수는 없는 것처럼, 임을 향한 화자의 '정'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는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화자의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소재이다. 또, '천상수(하늘 위의 물)'가 있다면 화자의 가슴속에 난 불을 끌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실에서 구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는 구할 수 없어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오답풀이] ② ⓐ는 임에 대한 마음을 끊을 수 없다는 화자의 뜻을 말하기 위한 소재이지 세상사에 대한 관심을 끊고자 하는 태도와는 무관하다. 또 ⓑ는 화자의 애타는 심정을 가라앉히고 싶다는 뜻을 말하기 위한 소재이지 오명과는 무관한 소재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연작 관계에 있는 두 작품의 호응 관계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나)의 화자는 임금을 못 잊어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의 ㉦은 마음속의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천은', 곧 임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말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나)의 화자가 자신은 평생 '충효'를 실천하기를 바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에서 (다)의 화자는 만약 (나)의 화자가 죽는다면 어버이에 대한 '불효'와 임금에 대한 '불충'을 한꺼번에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죽어서는 안 된다고, (나)의 화자를 말리고 있다. ② ㉥의 '앞일을 취하리로다'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의 일을 더 잘 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이다. ④ ㉢에서 (나)의 화자는 문을 굳게 닫아 버리고 온갖 일을 다 내팽개친 채 굶어 죽으려('불식 아사 하려') 한 적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다)의 화자는 ㉤에서 사는 것이 고생스럽더라도 살아야 한다고 (나)의 화자를 설득하고 있다. ⑤ ㉣에서 '일각 삼추(매우 짧은 시간이 삼 년 같다)'라는 말로 귀양살이가 힘들다고 한탄하는 (나)의 화자에게 (다)의 화자는 ㉠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삼 년을 버티며 견딘다는 속담을 들어 (나)의 화자에게 더 참고 견딜 것을 충고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두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작가의 의도를 중심으로' 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이 문제는 (나)와 (다)를 각각의 화자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두 작품을 쓴 동일한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해 보라는 문제이다. 작가 자신이 (나)에서는 화자이고, (다)에서는 '손님'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에서는 「만언사」와 「만언사답」 연작의 창작 의도가 임금의 선처를 끌어내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작가의 의도로 볼 때, (다)의 화자인 유배지 주민이 말한 '손님(=작가 자신) 몸 죽으시면'은 작가 자신이 죽음을 생각하는 상황임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나)의 '살 가망 없다'는 말은 '해도에 보내'라는 형이 내려지기 전, 즉 죄 지은 '나'를 섬에 유배 보내라는 형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유배지에서 겪는 심적 고통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화자인 유배지의 주민이 '손님'에게 '그릇한 일 뉘우쳐서 애달다 너무 마소'라고 한 것은 '손님', 즉 작가 자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말이다. ② (나)의 '큰 액이 닥치려니'에는 자신의 죄를 운수 탓으로 돌리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또, (다)의 '인개성인 아니'란 말에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 '손님'의 잘못도 있을 수 있는 실수라는 뜻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36 ~ 38] (고전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31쪽)

36.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피랍자(최충의 아내)는 납치자(금돼지)를 죽이는 방법이 사슴 가죽을 씹어서 머리 뒤에 붙이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슴 가죽이 없어' 안타까워하다가 곧이어 '약주머니의 끈이 사슴 가죽'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최충의 아내가 금돼지의 약점을 알고 사슴 가죽을 준비해 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 ⑤ 최충(구출자)은 '전일에 아내(피랍자)와 더불어 안 띠에다 약주머니를 달'았으며, 금돼지의 소굴에서 '약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자신의 도착을 아내에게 알렸다. 또한 최충의 아내가 금돼지를 물리칠 때 사슴 가죽으로 된 약주머니의 끈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최충의 아내도 최충과 마찬가지로 약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작중 인물의 발화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물음의 형식이지만, 바로 앞의 경치 묘사와 바로 뒷부분 이적의 '별천지(=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라는 대답을 고려할 때, 금돼지 소굴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둘러대는 말이다. ④ ⓓ는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의도를 감춘 채 넌지시 물어보는 말이다. ⑤ ⓔ는 갓난아이가 글자를 안다는 사실을 전하는 말로서, 아이의 비범함을 알려 상대가 마음을 바꾸도록 하려는 말이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최충은 ㉯의 영웅에 대응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가 아이(최치원)를 버린 것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금돼지의 자식이 아닌가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즉 아이가 금돼지의 혈통을 이어받았을까 봐 염려해서 버린 것이지 금돼지로부터 혈통적 신성성을 부여받지 못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혹시 최충이 자신의 영웅적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버린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최충은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는 영웅에 해당하므로, 아이에게 새로운 질서를 세울 영웅의 자격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여 버린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와 ㉯의 화소가 서사에 결합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최충이 아이를 버린 것은 당대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존의 영웅이 새로운 질서를 세울 영웅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풀이] ③ 아이가 금돼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손발톱의 모양이 이상하다는 모순되는 서술을 남겨 둔 것은, 주인공의 신성성이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을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설화적 신성성을 약화시키고 제거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천상계의 개입이며, 이는 주인공의 신성성이 ㉮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과 ⑤를 종합하자면, 이 작품에는 설화적 신성성은 약화되어 흔적만 남아 있고 소설적 신성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39 ~ 42] (사회)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25쪽

39.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흥국 화폐의 달러화 대비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신흥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신흥국 금융 자산의 상대적인 가치 역시 떨어질 것이다. 또한 환율이 하락할 때 추가적인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환율이 상승하면 투기성 자본이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만기와 원리금이 동일하다고 하여 채권 가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채권인지 신흥국의 채권인지에 따라, 시장 금리 차이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이 다르다. ② 둘째 문단에서 투기성 자본이 신흥국 자산에 단기 투자하는 이유로 신흥국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③ 토빈세나 스펀세 모두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세금이다. 또한 어떠한 투자 자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거래되는 것 모두에 세금을 부과한다. ④ 토빈세가 특정 국가에서만 시행되면 자금이 해당 국가에서 빠져나가 토빈세가 없는 국가로 이동할 것이다.

4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흥국의 금융 시장이 붕괴되고 경제 위기가 초래된 이유로 투기성 자본의 수익률 악화를 들 수는 없다. 오히려 투기성 자본이 빠져나감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금융 시장 붕괴가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투기성 자본과 같은 대규모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어 금융 불안을 가져왔다. ③ 환율이 급등하여 대외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된 것은 경제 위기의 한 원인이다. ④ 투기성 자본이 매도함에 따라 신흥국 금융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금융 시장 붕괴를 가져온다. ⑤ 미국에서의 금융 위기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가 거세졌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기성 자본이 신흥국에서 대거 이탈한 것이다. 해당 통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달러화 수요가 급등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투기성 자본은 작더라도 확실한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서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처만을 따라 움직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둘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설명으로 보아 투기성 자본은 환차익을 통한 투자 수익까지도 고려할 것이다. ② 특정 국가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투기성 자본이 신흥국에서 대규모 이탈하여 해당 금융 위기가 전파되는 데에 기여한다. ③ 선진국의 채권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저평가된 신흥국의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④ 투기성 자본의 빈번한 거래는 신흥국의 금융 시장에 상시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4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토빈세의 일종으로 2012년에 국내에서 발의된 적이 있는 외환 거래세 신설 법안의 내용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스펀세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정답풀이] 외환 거래세 신설 법안에서는 외국계 투자자가 원화를 매입할 때에만 외환 거래세를 부담하게 한다. 이는 거래 비용을 높여 애초부터 단기적인 목적의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위기 시에 대규모 유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원화를 매도할 때에 외환 거래세를 부담케 하는 것은 단기적인 자금 유입을 막는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이미 들어와 있다면 세율이 높아도 위기 시에 빠져나갈 것이다.

[오답풀이] ① 평상시의 낮은 세율 역시, 기존에 없었던 세금이 신설되는 것이므로 단기적인 자금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환 거래세의 신설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의 법안은 단기적인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출 시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황이다. ③ 환율 변동 폭이 클 때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위기 시에 단기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갈 때에는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는 상황이므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할 것이다. ⑤ 예외 규정은 수출입 대금과 같은 실물 경제 관련 자금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 운용을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아무리 높아도 그러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3 ~ 45] (현대시)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정호승, '폭풍'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1쪽 / 작가 연계 : 수능특강 88쪽)

4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2연과 제3연에서 '먹구름'이나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 온 청자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단정적 어조로 표현되고 있다. (나)의 제1, 2연과 제6, 7연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단정적 진술을 통해 '폭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자세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44. [출제의도] 표현의 특징과 결부하여 시행의 의미와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1연의 의문형 문장들은, 첫 문장은 그대로, 두 번째 문장은 '구름 한 송이'가 '구름 한 자락'으로 변주되어 [C]에서 반복된다. 제1연의 의문형 문장에는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 발화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이 의문형 문장은 '구름을 닦고' '쇠 항아리 찢'는 과정을 통해서야 '하늘'을 보거나 향유할 수 있다는 진술을 거치면서 다시 [C]에서 반복, 변주된다. 따라서 [C]의 의문형 문장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다'고 말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의문형 문장이 반복, 변주되는 것은, 의심하는 자세에서 실천을 촉구하는 자세로 나아간 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문형 문장의 반복, 변주를 통해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 심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B]의 '아침저녁'은 시간과 관련된 표지이며, 이러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닦고', '찢'는 행위의 지속이 '외경'이나 '연민'을 알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맥락을 보면 '폭풍'은 외적인 시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 한 송이 꽃'은 시련이 사라지고 나서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러한 '꽃이 되기를 /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시련을 회피한 채 결실만을 얻기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폭풍이 지나간 들녘'을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거나, 그 들녘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을 자유를 실천하는 존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먹구름'과 '쇠 항아리'가 하늘인 줄 알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것을 닦고 찢어 없애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자면, 이는 길들여진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스스로 폭풍이' 된다는 것은 '폭풍'으로 표상되는 시련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는 그러한 대응을 통해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생명력을 자유로이 발현하는 것과 결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한 그루 나무'와 '한 마리 새'에서 시련에 대응하여 자신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량이라는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은 타당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